

학교생활

### 온라인 수업용으로 교과서를 별도 구입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가 학교 시물함에 교과서를 놓고 오면, 온라인 수업 때 교과서 없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네요. 추가로 구매하고 싶어 대형 서점에 문의해보니 아이 학교 교과서는 일찌감치 재고가 없다고 해요. 별도로 구매하거나 다른 이용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_강소현(44·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운영 사이트에서 구매하거나, 에듀넷을 통해 디지털 교과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www.ktbook.com)에서 교과서의 매장 구입과 온라인 구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장 구입은 시·도별 교과서 판매 서점 검색 후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구매 역시 해당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초·중·고 교과서뿐 아니라 교사들이 사용하는 지도서도 출판사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에듀넷 디지털 교과서(dtbook.edunet.net)에 접속해 디지털 교과서 웹 뷰어나 앱 뷰어 설치 후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1학년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 중학교는 <사회> <과학> <영어>, 고등학교는 <영어> <영어회화> <영어I> <영어독해와 작문> 교과만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외의 교과는 교과서 PDF로 제공됩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 교과서 내용 중 필요한 부분에 별도 영상 자료나 추가 설명 페이지를 링크해 보다 풍부한 콘텐츠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



#### MORE TIP

에듀넷 e학습터는 자율 학습 시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학년별 학습 영상'에는 주요 과목 주제별 영상이 마련돼 있습니다. '평가 비법 영상'은 <수학> <사회> <과학> 교과 관련 서술·수행평가 대비 영상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 교과의 경우 '서평 쓰기' '통계지도 읽기 평가' 영상을 통해 평가 예시 답안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학교 수업 외 추가 학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취재 이지연 리포터 judylee@naeil.com

## 〈미적분〉 자신 없는 고3, 지금 시점에서 〈확률과 통계〉로 바뀌도 될까요?

자연 계열에 지원하려는 고3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수능 수학에서 〈미적분〉을 선택하려 하지만, 성적이 안 나와 고민이 많습니다. 학교 내신도 〈미적분〉보다 〈확률과 통계〉가 잘 나오는 편인데, 수능이 5개월도 안 남은 지금 〈확률과 통계〉로 바뀌도 될까요? 예전에는 수학에 자신 없는 이과 학생들이 수학 나형으로 바꾸는 경우도 많았다던데요. 올해도 수학 중하위권 학생이 〈확률과 통계〉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지 궁금합니다. \_ 김수현(52·인천 연수구 송도동)

### 모의고사로 〈확률과 통계〉 실력을 진단한 뒤, 확연한 차이가 없다면 〈미적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까지는 수학 가형을 선택한 이과 학생들이 6월 모의평가 이후 성적 상승을 기대하며 나형으로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문·이과 통합으로 계열 구분 없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성적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선택 과목 난도에 따라 유리 불리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통 과목 점수를 이용해 선택 과목 점수를 조정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따라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수학 나형으로 전환했던 기존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구 경신고 허준일 교사는 “수Ⅰ, 수Ⅱ 공통 과목의 평균 자체가 〈확률과 통계〉보다 〈미적분〉 선택 집단이 훨씬 높으므로, 조정 점수 면에서 불리할 수 있는 〈확률과 통계〉로 갈아타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다.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봤을 때 〈미적분〉보다 확연히 성적이 높다면 고민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통 과목 평균이 높은 선택 과목 집단에 있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자연계 학생은 가급적 선택 과목을 유지하면서 점수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MORE TIP

〈미적분〉이 어렵고 부담스러워도 〈확률과 통계〉로 바꿀 생각을 하기보다는 본인 수준에 맞는 방식으로 공부를 이어가야 합니다. 전북 전주우석고 박창섭 교사는 “교과서 예제 문제와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미적분〉에서 충분히 10점 이상을 얻을 수 있다. 2점과 3점 문항은 모두 맞히겠다는 목표를 세워 공부하고,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수학Ⅰ〉 〈수학Ⅱ〉 공통 과목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확률과 통계〉가 〈미적분〉보다 공부량이 적어 수월할 순 있지만, 자신의 수학 점수가 높아질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취재 이지영 리포터 easygoing@naeil.com



〈내일교육〉 편집팀이 매주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입시·진로·생활 등 질문의 폭을 다양화합니다. 속시원히 털어놓으세요. 이메일(asjung@naeil.com)로 질문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_편집자